

소아 신증후군 치료에서 methylprednisolone과 deflazacort의 효능과 부작용 비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박성신 · 김성도 · 조병수

Comparison of Efficacy and Adverse Effects of Methylprednisolone and Deflazacort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Nephrotic Syndrome

Sung-Shin Park, Sung-Do Kim, Byoung-Soo Cho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목 적 :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신증후군 환자 치료의 주축을 이룬다. deflazacort (DFZ)는 치료 효과는 prednisone과 비슷하지만,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은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DFZ는 다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보다 가격이 비싸서 실제 임상에서 처방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DFZ 보다 가격이 저렴한 methylprednisolone (MPD)이 DFZ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MPD와 DFZ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였다.

방 법 : 최소변화공팔병증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치료 1년 동안의 관해율, 관해 유도 기간, 재발율, 재발 횟수, 관해 유지 기간 등의 치료 효과와 골농도의 변화, 백내장과 녹내장 발생율과 발생까지 걸린 기간, 성장 속도 및 체중과 신체비만지수 변화에 대하여 DFZ 군과 MPD 군을 비교하였다.

결 과 : 관해율은 DFZ 군에서 98.1%, MPD 군에서 96%였으며, 재발율은 DFZ 군에서 32.7%, MPD 군 24.0%로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두 군 모두에서 골농도 증가를 보였다 (DFZ 군: +15%, $+0.067 \pm 0.097 \text{ g/cm}^2$, MPD 군: +29%, $+0.128 \pm 0.105 \text{ g/cm}^2$). DFZ 군에서 4명 (7.7%), MPD 군에서 1명 (4.0%)이 백내장에 이환되었다. DFZ 군에서 3명 (5.8%), MPD 군에서 2명 (8.0%)이 안압의 증가를 보였다. 사춘기 전 환아들의 성장 속도는 DFZ 군에서 $6.0 \pm 2.6 \text{ cm/year}$, MPD 군에서 $5.5 \pm 3.4 \text{ cm/year}$ 이었다. 두 군 모두에서 체중과 신체비만지수의 의미 있는 증가는 없었다.

결 론 : MPD는 DFZ 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DFZ 만큼 치료 효과가 있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었다.